

CEO 동정

KTX 개통 10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 참석



강영일 이사장은 4월 1일 대전 본사에서 국토교통부 여영구 제2 차관을 비롯하여 최연혜 코레일 사장 등 철도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고속철도(KTX) 개통 10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에서 축사를 전했다.

CEO 동정

2014 동우회 정기총회 개최



강영일 이사장은 4월 11일 서울 군인공제회관에서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과 한국철도시설공단 퇴직자 모임인 철도공단 동우회를 개최했다.

CEO 동정

공항철도 및 수도권본부 건설현장 방문



강영일 이사장은 3월 26일 인천공항철도 검암역, 청라역, 수석 직결선 등 수도권본부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승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개통에 차질 없도록 지시했다.

CEO 동정

식목일 맞아 희망의 나무심기 실시



강영일 이사장은 식목일을 맞아 3월 31일 대전 중구 혜천대 연수원 인근에서 공단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직원 70여 명과 함께 이팝나무 400여 그루를 심는 '희망의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했다.

3월 26일 김포도시철도 착공식 개최

수도권본부(본부장 이수형) 김포지하철건설사업단은 3월 26일 김포한강신도시 출발역 부지 인근에서 강영일 이사장과 유영록 김포시장 및 김포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포도시철도 건설 기공식을 갖고 5개 공구별 공사에 본격 착수했다.

김포도시철도는 1조5086억원을 투입하여 김포한강신도시와 김포공항역간 23.63km 전 구간 지하로 있는 사업으로 김포공항 환승역을 포함하여 9개 역이 신설되며, 2017년까지 주요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스템설치와 시운전을 거쳐 2018년 11월 개통할 계획이다.

김포도시철도가 개통되면 신도시 기점에서 김포공항까지 28분대에 도달할 수 있어 이 지역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뿐만 아니라, 경기 서북부 지역이 수도권 철도교통망에 편입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단은 2013년 6월 차량과 신호시스템 등 열차운행과 관련된 핵심시스템 공급자 선정을 마치고, 12월에는 전체 구간을 5개 공구로 나누어 터키입찰을 통해 토목, 궤도, 건축공사를 위한 시공사를 선정했다.



전직원 참여한 大토론회 'KR하모니 워크숍' 개최

- 집중근무시간제·회의총량제 등 일하는 방식 개선 아이디어 도출 -

기획혁신본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 및 공단의 new normal 정착을 위한 경영환경을 극복하고자 전 임직원이 참여한 大토론회 'KR하모니 워크숍'을 개최했다.

본부는 비용 및 업무공백 최소화 및 전 임직원이 함께하는 소통과 토론의 장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14일부터 25일까지 본사 및 5개 지역본부별로 1차 워크숍을 진행했고, 1차 워크숍에서 도출된 안건(860건)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본부별 대표들이 참석하는 2차 워크숍을 4월 4일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상하·수평 간 소통활성화를 통한 협업강화, 자율적 혁신활동을 통한 철도 기술 개발, 일하는 방식개선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도출됐다.

특히, 불필요한 회의·보고서 작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회의총량제 및 업무 효율성이 높은 시간대에는 회의 및 타부서 전화 등을 가급적 자제하는 집중근무시간제 등이 제안됐다.

본부 관계자는 "KR하모니 워크숍을 통해 공단은 업무효율은 높이고, 창조적 아이디어가 존중받는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철도마파이가 아닌 철도마니어로 거듭날 것"이라며 "향후 고속철도망 확충은 물론 유라시아 철도 및 남북철도 연결 등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구현에 앞장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동해남부선 개발사업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민간제안서 심의

사업시행본부(본부장 최성관)는 4월 10일 동해남부선 舊해운대역(2만6982㎡) 및 미포~홍송정역 구간(약 4.8km) 개발사업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심의했다.

이번 심의는 2014년 1월 28일부터 3월 28일에 걸쳐 시행한 제안공모에 舊해운대역 개발사업 1개 컨소시엄, 미포~홍송정역 구간 개발사업 6개 컨소시엄이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수립된 최적의 제안서를 채택하기 위해 시행했다.

본부는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서 공모 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기 공지('14.1.27)된 심의기준을 적용했으며, 심의위원은 공단 자산개발위원회 외부전문가 인력풀(Pool)과 부산시 및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인력풀(Pool) 중에서 본 사업의 이해관계자를 제외하고 심의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후, 심의 당일 각 제안자 및 공단 감사실 직원 입회 하에 심의위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고 추첨순위에 따라 유선전화로 위촉수용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선정했다.

본부는 제안 채택자에게 당해 제안으로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주관자 공모에 응모 시 총 평가 점수의 3%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며, 채택된 제안서 및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舊해운대역 및 미포~홍송정역 구간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2014년 4월 중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6월 사업주관자 공모를 시행, 60일간의 공모기간을 거쳐, 8월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통해 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주관자 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제안 채택자 외에도 자격을 갖춘 업체는 제한 없이 사업주관자 공모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본부는 제안서 심의에서 사업계획서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걸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공시사항 등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단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동해남부선 민간제안서 접수 결과>

(미포~홍송정역 구간) 6개 컨소시엄 응모				(舊해운대역) 1개 컨소시엄 응모			
구분	컨소시엄	구성원	비고	구분	컨소시엄	구성원	비고
1	레이&스토리(KNN) 컨소시엄	KNN, 선구산업, 부산일보, 부산관광공사, 코레일테크		1	레이&스토리(KNN) 컨소시엄	KNN, 선구산업, 부산일보, 부산관광공사, 코레일테크	
2	홍우산업 컨소시엄	홍우산업, 청록, 부산교통공사					
3	상정건설	상정건설					
4	하나투어 컨소시엄	하나투어, 부산MBC					
5	한화S&C	한화S&C					
6	(주)삼미	(주)삼미					